



전주대 김미은 교수,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전주대학교(총장 류두현) 간호학과 김미은 교수가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한 공로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지난 5일 수상했다고 밝혔다.

김미은 교수는 분만실 간호사 및 조산사로 임상 현장에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한 출산을 위해 헌신해왔으며, 2018년부터 전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 양성에 힘써오고 있다.

특히 김미은 교수는 모성건강 간호분야의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이어오며 학문적 기반을 강화해 왔고, 대한조산학회 교육위원과 대전광역시 조산사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며 협회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조산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적극 참여하며 현장 중심의 인재 양성에 앞장섰다. 이러한 공로를 바탕으로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재훈 기자

“안전하고 따뜻한 명절 보내도록 최선”

도, 설 명절 맞아 소방·군부대 찾아 현장 근무자 격려

전북특별자치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연휴에도 현장을 지키는 소방공무원과 군 장병들을 직접 찾아 격려에 나섰다.

도는 9일 김관영 도지사가 호서119안전센터를 비롯해 금암·봉동·팔봉119안전센터를 방문해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 현장에서 근무 중인 소방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현장 근무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근무자들과 대화를 나누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119안전센터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일선”이라며 “현장 활동과 훈련 과정에서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같은 날 노홍석 행정부지사는 육군 제85보병사단을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으며, 전북특별자치도는 육군부사관학교, 제7공수특전여단, 제6탄약창 공군 제38전투비행대 등 도내 주요 군부대에



격려금을 전달하며 명절 위문 활동을 이어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매년 명절마다 재난 대응과 국가안보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근무하는 현장 인력을 찾아 감사와 격려를 전하는 위문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오만호 기자



농촌진흥청, 전북 사회복지시설에 차량 기증

농촌진흥청이 설 명절을 앞두고 전북 지역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나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지난 6일 전주시 덕진구에 위치한 아동복지시설 ‘호성보육원’에서 차량 전달식을 열고 어린이들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차량을 기증했다.

이번 차량 기증은 2020년 전주사랑의집을 시작으로 모세스영아원, 성요셉장애인양육원, 소화전달네집, 신성안로원, 성암동자녀에 이어 일곱 번째로 진행됐다. 기증 차량은 농촌진흥청 직원들이 연말설 모금한 성금과 ‘기쁨마켓’, 희망나눔 바자회 수익금을 모아 마련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이승돈 농촌진흥청청장과 나소양 호성보육원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아이들의 등·하원과 체험활동 등 일상 이동에 차량을 안전하게 활용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농촌진흥청은 차량 기증과 함께 성금과 생필품 전달도 병행하고 있다. 같은 날 이승돈 청장은 아동복지시설 ‘삼성휴먼빌’을 방문해 성금 150만원을 전달했으며, 오는 9일에는 김상경 차장이 장애인복지시설 ‘예수재활원’을 찾아 성금 150만 원과 생필품 1,800여 점을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사립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등 4개 소속 연구기관장과 직원들도 9~10일 이틀간 기부 활동에 동참한다. 이들은 전북 지역 사회복지시설 2곳과 완주군 이서면 행정복지센터에 총 400만 원의 성금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설 명절을 맞아 직원들이 한뜻으로 정성을 모아 이웃에게 따뜻한 선물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온기를 전하는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서신동 홀로어르신 가구 주거환경 개선 나섰다

희망나눔봉사대, 도배 등 노후화된 집 내부 교체

희망나눔봉사대는 지난 9일 서신동 내 주거 취약계층 대상으로 홀로어르신택에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157호로 선정된 서신동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홀로어르신 가구를 방문해 방과 거실의 도배·장판 및 주방 싱크대와 블라인드, 보온용 랙백이, 방충망, LED 전등교체 작업 등 노후화된 집 내부를 전면 교체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희망나눔봉사대는 지난 2007년부터 활동을 시작해 주거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재능기부를 통한 집수리봉사를 몸소 실천하는 민간봉사단체로 전주지역 실내건축·인테리어 전문기술자 및 자원봉사자 35명이 한뜻을 모아 재능기부를 꾸준히 선사하고 있다.

봉사대 회장은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지내시는 가정을 보며 한바탕 한바탕을 모아 집수리봉사를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이웃들에게는 재능기부를 지속



적으로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김은성 서신동장은 “봉사회원들의 후일을 반납하고 취약 가구에 주거환경 개선봉사에 참여해주신 희망나눔봉사대 회원들에게 감사하다”며 “봉사대의 따뜻한 마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주민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권희성 기자



고창교육지원청, 아동복지시설 격려 방문

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한숙경)은 2월 6일 병오년 설 명절을 앞두고 고창행복마을을 방문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시설 운영에 필요한 생필품을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고창교육지원청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마련된 기부물품을 함께 전달해 그 의미를 더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북지경위, 설 명절 삼례파출소 격려 방문

전북특별자치도지경위경찰위원회는 이연주 위원장이 9일 삼례파출소를 방문해 설 연휴 기간 24시간 지안 대응태세를 점검하고, 현장 경찰관과 치안협력단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치경찰 사무 수행과 지역 치안 질서 유지에 기여한 경찰공무원 3명과 자율방범대·생활안전협의회 등 치안 협력단체원 4명에게 표창장과 감사장도 수여했다.

표창을 받은 유영길 경감은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책임감을 가지고 현장 치안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만호 기자

안보공단전북, 3대 기초 안전수칙 준수 캠페인

안전보건공단 전북지역본부(KOSHA, 본부장 이상열 이하 공단)는 9일 전북 관내 (주)포스코이앤씨 전주 기자촌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현장장을 찾아 근로자를 대상으로 3대 기초 안전수칙(안전모, 안전대, 안전벨트) 및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캠페인을 실시하고, 동시에 신규 채용된 ‘안전한 일터 지키기(건설업)’ 16명에 대한 OJT를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현장 근로자의 필수 보호구 착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나아가 현장 중심의 자율적인 안전문화가 정착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이들은 다음 날까지 OJT를 거쳐 모래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여 지붕공사 및 소규모 건설현장 등을 순찰하면서 안전수칙 정보 등을 제공하고, 안전시설 설치가 필요한 현장에 재정지원 사업을 안내하는 등 신속한 연계를 지원할 방침이다. /오만호 기자

설 명절 소외 이웃에 ‘아름다운 나눔보따리’

아름다운가게 전북본부, 나눔 캠페인 진행

아름다운가게 전북본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소외 이웃에게 따뜻한 나눔을 전했다.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이사장 박진원) 전북본부는 지난 7일 생필품을 전달하는 시민 참여형 나눔 캠페인 ‘아름다운 나눔보따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아름다운 나눔보따리’는 2004년 시작돼 올해로 23년째를 맞은 아름다운가게의 대표적인 명절 나눔 캠페인이다. 설 연휴를 앞두고 시민과 자원봉사자가 함께 생필품을 마련해 돌봄이 필요한 이웃에게 직접 전달하며, 이웃 간 온정을 나누는 행사로 자리 잡아 왔다.

전북본부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약 10만원 상당의 생필품이 담긴 나눔보따리와 이불 등 총 280개를 지역 내 소외 이웃에게 전달했다. 보따리 전달을 위해 자원봉사자 170여 명



이 배달전사'로 참여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2028년 나눔보따리는 ‘새해에 가장 따뜻한 배달’을 주제로 기획됐다. 명절을 앞두고 상대적으로 외로움과 어려움을 느끼기 쉬운 이웃에게 작은 위로와 응원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다. /오상근 기자

형성욱 전 남원시의원, 아영면에 이웃돕기 성금

남원시 아영면 관계자는 관내에서 활동하는 형성욱 전 시의원이 설 명절을 맞아 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고 9일 밝혔다.

형 전 시의원은 평소에도 지역 현안을 살피는 등 의정활동과 더불어 나눔과 봉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앞장서 왔으며, “작은 정성이지만 한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이웃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나눔과 연대의 가치를 실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동충동, 찾아가는 경로당 간담회

남원시 동충동(동장 박미라)은 지난 2월 4일부터 3일간 관내 경로당 6개소를 방문해 주민과 직접 소통하는 ‘찾아가는 경로당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동장이 경로당을 찾아 주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시정 사항을 안내하고, 생활 불편 사항과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 △남원시 민생안정지원금 △남원 경찰수련원 건립사업 △연향행 행복가속사업 △남원 대비 국민행동요령 등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장학금 전달발아

남원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지난 6일, 시 애향본부(회장 김경주)로부터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장학금 40만 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장학금은 학교 밖에서도 자신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 애향본부는 남원 출신 학생들을 중심으로 고향 발전과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꾸준한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단체이다.

한편, 시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문 상담, 검정고시 지원 건강검진, 지립을 위한 자격 취득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 및 보호자는 센터(063-633-1977)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남성의용소방대, 학교동에 잡곡 세트 기탁

남원시 향교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최현목)는 지난 6일, 남원 남성의용소방대(회장 양성복)가 소외된 이웃들이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잡곡 세트 100개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은 의용소방대원들이 심시할만 정성을 모아 마련한 것으로, 기탁된 물품은 향교동의 핵심 복지사책인 ‘1일 1가구 소통행정’과 연계해 동장과 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독거노인, 장애인 가구 등 복지 사각지대를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고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부안군 일간지 기자단, 권익현 군수에 공로패

부안군 일간지 기자단(간사 이현치)에서는 9일 부안군청 군수실에서 군민의 알 권리 신장 등의 공로로 권익현 부안군수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이번 일간지 기자단은 권익현 군수가 부안군수로 재임하면서 군민을 최우선에 두는 군정 철학과 책임 있는 행정 수행으로 부안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끈 점을 높이 평가했다.

또 지역 언론과의 성실하고 열린 소통을 통해 군민의 알 권리를 신장시키며, 투명하고 신뢰받는 군정 구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 공로를 인정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헤븐코리아, 고향사랑기부 담례품 다시 기탁

정음시는 9일 (주)헤븐코리아(대표 김갑수)가 설 명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백미 10kg 100포(300만 원 상당)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은 김갑수 대표가 정음시에 고향사랑기부금 1000만원을 전달하고 받은 담례품(백미 100포) 전량을 다시 지역사회에 환원한 것이어서 그 의미를 더했다. 기탁된 쌀은 관내 저소득층 가구에 전달돼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될 예정이다. /정음=김대환 기자

본사내방

▲백경대 전북특별자치도 대외국제소통국장